

“디지털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교두보로 자리잡아”

▶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한국-대만 콘텐츠/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만의 디지털콘텐츠진흥센터(DCIPO)와 소프트웨어산업협회(CISA)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비즈니스 상담회로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 인터넷콘텐츠와 솔루션 등의 업체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이미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대만에서는 이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대만의 콘텐츠/솔루션 비즈니스 상담회 진행을 맡는 소프트웨어진흥원 김일곤 수석은 “대만은 이미 몇몇 게임 등이 큰 인기몰이를 하면서 다른 업체들에도 호의적이라며, 대만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의 참가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김일곤 수석(02-2141-5471/lkkim@software.or.kr)

▶ 동남아 지역의 비즈니스 상담회가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동남아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된다. SingTel, Starhub, Hutchison, Optus, AsiaSoft, Bolehnet 등 동남아시아 6개국의 주요 이통사 및 온라인게임 사업자 50여 업체가 참여하는 상담회로 좋은 해외 진출 미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 디지털콘텐츠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기획한 손동완 책임은 “태국 등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관심이 높아 업체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 2003년 8월 26일(화)-27일(수) 방콕(태국) : 2003년 8월 29일(금)

장소는 싱가포르는 Swissotel The Stamford Hotel, 방콕(태국) JW Marriott Hotel에서 진행된다.

문의 : 손동완 책임(02-2141-5473/peterson@software.or.kr)

▶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미국 뉴욕 Marquis Hotel에서 열리는 BAAF(Big Apple Anime Festival)은 해마다 8월말 노동절 휴일기간 동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로 DVD, 홈비디오 관련 애니메이션 등이 다수 참가하는 행사이다. 전시회, 팬 콘테스트(Fan Contest)와 각종 이벤트 등이 열려 일본의 애니메이션(재패니메이션)이 미국의 일반 고객들에게 쉽고 광범위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페스티벌로 한국 기업들의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 박승원 수석(02-2141-5472/spark@software.or.kr)

▶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해외 기업을 초청해 국내 기업과의 만남을 알선하는 1:1 비즈니스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2년 이후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국내 비즈니스 상담회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동남아 등 세계 각지의 바이어를 한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각 지역 iPark의 디지털콘텐츠 전담자로부터 현지의 생생한 시장정보를 들을 수 있는 세미나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 류명 선임(02-2141-5476/myou@software.or.kr)

▶ 지난해 8월 한?일 디지털콘텐츠 기업간 최초의 비즈니스 상담의 기회이자, Softbank, NTT, Sony 등 일본기업 150개가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상담회가 올해도 개최된다. 일본디지털콘텐츠협회(DCAJ), 모바일콘텐츠포럼(MCF), 경제산업성이 후원하는 행사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며, 세계 3대 게임쇼 가운데 하나인 ‘동경게임쇼’(Tokyo Game Show : TGS)와 연계돼 진행돼 콘텐츠 강국으로 알려진 일본에 국내 디지털콘텐츠를 소개하고, 비즈니스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김연희 선임 (02-2141-5475/mypeace@software.or.kr)